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

■일본 대지진 4년... 사고 수습 ‘난항’

대지진 사고 4주년(11일)을 앞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은 완전 폐로(廢爐)를 향해 힘든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폐로까지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피란민 아직도 23만=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4일 발표한 농림수산업 분야의 대지진 피해 복구 상황에 의하면, 이와테,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등 도호쿠 3개현의 어획량은 작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총 695억 엔(6391억원)으로 대지진 전년의 87%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부흥청의 1월15일 기준 집계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 때문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일본 각지에서 피란 생활을 하는 주민은 아직도 22만 9897명에 달한다.

특히 원전사고 피해가 극심한 후쿠시마현 출신 피란민은 11만7000명 선에 이른다. 지진에 따른 직접 사망자와 실종자 2만여명과는 별개로 작년 9월30일까지 3194명이 지진 관련 사망자 판정을 받았다.

◇4호기 연료봉 인출 완료. 1~3호기에는 접근도 어려워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4호기 내부에 남아 있던 연료봉을 모두 꺼냈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4호기의 저장 수조에 보관된 핵연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작년 12월 22일까지 사용 후 핵연료봉 1천 331개, 미사용 핵연료봉 204개 등 1535개를 모두 인출했다.

그러나 4호기는 2011년 3월 사고 당시 점검 중이라서 연료 용융(녹아내림)을 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연료가 녹은 것으로 추정되는 1~3호기에는 방사선량이 높아서 작업자가 함부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속수무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에 측정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경계선 인근 7개 지점의 공간 방사선량은 시간당 1.083~3.6775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이곳에 1시간 동안 머물러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이론상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10μSv 기준) 때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3호기 근처로 다가서면 방사선량이 급격히 높아진다. 예를 들어 2호기에서 약 500m 북서쪽 지점은 방사선량은 98.8μSv(3일 오후 11시30분 기준)이며 이곳에 10시간 남짓 머물 때 노출되는 선량은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1천μSv=mSv)에 달한다.

◇오염수 무대책=2013년부터 국제 사회의

폐로까지 30~40년 예상

23만명 아직도 피란 생활

방사성 오염수 해법 막막

우려를 낳았던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여전히 해법이 막막한 상태.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에는 오염수 약 57만t이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36만t이 일정한 수준의 정화 처리를 거친 것이고 21만t은 아직 정화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정화처리를 해도 모든 방사성 핵종이 걸러지는 것은

아니며 삼중수소(트리튬)는 물속에 남아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포함해 7종의 정화 설비를 모두 가동하고 하루에 1260t의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으며 처리 능력을 점차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런 노력에도 오염수 문제 등에 관해 도쿄전력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원전 주변 땅을 열려 지하수를 막는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사한 실험에서 물을 완전히 얼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언제쯤 돌아갈까 대지진 4년을 눈앞에 둔 지금도 일본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일본 각지에서 피란 생활을 하는 주민은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22만 9897명이 다. 일본 미야기 현의 한 가설주택 단지에서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 /연합뉴스

학생수 10배는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원·초·중·고 등 1100여명

도교육청 2018년까지 13개교 개교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배나 증가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이 52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초·중·고 학생 수 역시 690명(초등학생 503명, 중학생 67명, 고등학생 1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로 젊은 부부가구의 이주 영향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원아도 크게 늘었다. 한아름유치원 116명과 긴급 편성된 빛누리유치원 3학급 90명 등 교육청 운영 유치원생은 206명이다. 또 한전 어린이집(정원 140명)과 한전 KDN 어린이집(45명), 한국농어촌공사 어린이집(23명) 등 5곳이 운영중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 24명, 고등학교 20명으로 한 반을 편성, 혁신도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전국 최저일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중·고등학교의 평균 학생배치지표(학급당 30여명)를 웃돌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학생배치지표(23.4명)와도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혁신도시에너지과 관계자는 “혁신도시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젊은 부부 가구의 수도권에서 이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입주한 주민들의 연령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0세부터 19세까지가 전체의 31%인 1575명으로 학생을 포함한 가족동반 추세가 뚜렷하다. 60대 이상이 220여명으로 4%에 불과해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유치원 1, 내년에 초등학교 1개교 ▲2017년 유치원 1, 초등학교 2, 중학교 1개교 ▲2018년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3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복지 예산 늘어 정부 재정 조정 필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적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2014년에 비해 지방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됐으나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급증한 만큼 정부의 재정 조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감소했으나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등으로 1조 800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중앙의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올해 2013년 대비 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인구, 수도권에서 유입 ‘눈에 띄네’

귀농, 혁신도시 효과... 작년 1761명 전입

광주 등으로 진출 여전... 인구 감소세 계속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증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본격 가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남에서 광주, 충청권으로 이주시는 인구 비중이 높아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5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남도로 1761명이 전입했다. 2년 전인 지난 2012년 전남도민 1588명이 수도권으로 전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민의 서울 전출 인구는 지난 2012년 1053명, 2013년 408명, 2014년 16명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는 지난 2012년 각각 94명과 441명 전출을 기록했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269명, 652명과 261명, 1486명이 전남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서 전남으로의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그 추세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민의 경우 여전히 광주시로의 이주가 많아 전남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2146명에 이어 2013년 1762명, 2014년 1586명 등으로, 3년간 5494명이 ‘광주시민’으로 삶을 바꿨다.

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총남으로 1947명, 대전으로 700명, 세종특별자치시로 453명이 전출되면서 인구는 여전히 감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월 말 현재 전남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90만42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만 6363명에서 2143명이 감소했다. 타시도 전입 인구가 8871명이지만 전출인구가 1만337명이 나 되기 때문이다. 또 신생아는 1327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1489명을 보이는 전형적인 ‘초고령사회’ 현상도 한 몫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만4415명으로 전남도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 및 귀어 정책 강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일자리 창출, 도시기반 및 문화·교육·서비스 시설 확충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도로 이주한 귀농인은 지난 2009년 549세대에서 2010년 768세대, 2011년 1521세대, 2012년 2492세대, 2013년에는 3261세대로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지난 1월말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4302명으로, 이 가운데 순수하게 타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은 2043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내 거주인구 목표치가 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0분의 1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6기의 모든 정책이 타시도로부터의 전입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하고 이주해 나가는 여건을 보완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참숯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 소갈비수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믿을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께 싸게 드시고 업주는 척은아닌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비는 불경기용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1번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